○ 효부 및 열부의 상징 김호의 처 행주기씨 정절비

문화재 분야	유형문화
효문화 유형	부모사랑(봉양형), 부부사랑(열부형)
시 대	조선
소 재 지	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산42
참고문헌	『이천시 충효열 인물전』(이천시, 1998), 현장비문, 현장안내문

행주기씨(1740~1800)는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고 슬기로웠으며 어릴 때부터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여 인근에서는 출중한 규수요 효녀라고 일컬었다. 자라나서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의 선비 김호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초례를 올리고 2~3년 후 다시 길일을 택하여 우귀(큰 예식 후 신부가 시집에 처음 들어가는 날)할 것을 기약하고 남편은 부인을 친가에 남겨둔 채 본가로 돌아갔다가 그 이듬해 정초에 처가로 세배차 찾아왔다. 이천에서 충북 중원까지는 백여리가 되었는데 남편은 나막신을 신고 먼 길을 걸어 처가에 당도하자마자 노독과 괴질로 처가에서 세상을 떠났다. 그때 기씨의 나이는 겨우 열넷, 시댁에 돌아가기도 전에 청상과부가 되어 버렸는데도 조금도 기구한 운명을 탓하지 않았다.

그 후 기씨는 모든 역경을 무릅쓰면서 낮에는 밭갈이, 밤에는 길쌈으로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, 남편과 조상 제사에 정성을 다하여 효부, 열녀의 도리를 다했다. 당시 유림의 포상은 물론 고을 수령이 직접 부인을 찾아보고 칭찬하는 등 인근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부인은 시동생 김위의 장남 김성오를 낳은 지 사흘 만에 데려다가 고이 길러 남편의 후사를 잇게 했는데 그 후손이 번창하고 효자가 많이 배출되었다.
이 같은 기씨의 정절을 후세에 거울로 삼고자 고향가꾸기 사업을 하는 이 마을 출신 김병일씨가 정절비를 건립, 1980년에 제막식을 가졌다.